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이 공중 반응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비난을 중심으로*

함승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 비난이 발생한 것에 주목해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비난 발생 기제를 위협의 불확실성 메시지와 재난 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난으로부터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은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를 높였다. 그리고 인적 재난은 자연 재난에 비해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분노를 높였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은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과 피해자 비난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재난 통제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 비난은 증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감적 분노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수준을 높게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감소했다.

핵심어: 피해자 비난, 불확실성, 재난유형, 사회적지지

*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hamseungkyung@gmail.com

1. 문제제기

재난 공중들은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재난 메시지를 통해서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메시지 수용자로서 재난 공중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재난 메시지를 통해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 Pfefferbaum, 2008). 미디어는 재난 발생과 피해 규모 그리고 재난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재난 상황에서 전달되는 재난에 관한 메시지는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들의 주장이 반영된다. 공중들의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정보원들의 다양한 주장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정보원들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들은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위험의 불확실성은 위협에 대한 걱정,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Adeola, 2000; Matthies, Hoger, & Guski., 2000).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모호한 것과 관련된 결과를 선택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Ellsberg, 1961).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감은 위험과 관련해서 확실한 것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위험의 축소보다 제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심리 이론(Weary & Edwards, 199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느낌을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need)를 갖고 있다. 위험의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를 정교화하기보다 고정관념, 편견 등의 단순화된 인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Van den Bos, Poortvliet, Maas, Miedema, & van den Ham, 2005). 재난의 원인과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은 재난 피해의 원인을 정교하게 외적으로 귀인시키기보다 단순하게 개인적 성향으로 귀인하려는 경향을 높일 수 있다.

재난은 원인에 따라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제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적 재난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자연 재난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된다(송기종, 2014; 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2014). 통제의 문제는 책임의 문제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통제 가능한 인적 재난의 발생은 통제의 상실로 설명되고,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 재난은 통제의 결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Baum, Fleming, & Singer, 1983). 통제의 상실은 재난 발생의 책임이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 또는 조직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의 결핍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통제를 할 수 없는 자연 재난보다 통제를 상실한 인적 재난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비난은 개인 책임주의에 근거한다(Karmen, 2012). 비난은 비난받는 사람에게 사회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행위자가 비난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McKenna, 2012). 이와 관련하여 하이더(Heider, 1958)는 비난 귀인이 형성되는 단계를 연합(association), 인과성(commission), 예측 가능성(foreseeability), 의도성(intentionality), 정당화(justification) 등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Alicke, 2000). 관찰자들은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를 연결시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행위자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예측을 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엘리케(Alicke, 2000)는 이와 같은 규범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 모델로는 사회적 기대를 일탈하는 비난의 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인지적 측면과 동기 편향을 결합한 '과실통제모델(culpable control model)'을 제시했다. 과실통제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통제에 대한 판단과 비난 귀인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적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spontaneous evalu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면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의사회 신념을 위협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즉각적 평가가 피해자 통제수준을 높게 판단하도록 편향시켜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비난과 같은 사회적 기대를 일탈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받는 피해자의 이픔에 공감한다. 공감은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Clark, 2007), 타인의 고통에 주목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여러 형태로 반응하는데, 고통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관계 과정이다(Kanov et al., 2004). 피해자와의 공감은 슬픔과 고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Hoffman, 1990). 하지만 호프만(Hoffman, 1989)은 공감을 슬픔과 고통 등의 수동적 감정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감 반응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 귀인이 공감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다면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 또는 가해 상황에 대해 공감적 분노(empathic anger)를 경험할 수 있다. 공감적 분노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며(Wakslak, Jost, Tyler, & Chen, 2007),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itaglione & Barnett, 2003).

사회적 지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의 완충재로 작용하고 재난으로부터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Kaniasty & Norris, 2004).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감은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렇다면 피해자 비난은 사회적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서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들의 사회적지지 인식을 약화시킨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는 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피해자 비난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면함으로써 위협받게 되는 정의사회 신념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난에 대한 책임을 돌려 정의사회에 대한 신념을 회복하고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한다. 비난을 받는 피해자들은 비난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지만, 역설적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통해서 정의사회 신념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공중들의 반응들 간의 관계를 피해자 비난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피해자 비난이 형성되는 기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한 비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자 비난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자 비난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난과 위험의 불확실성

재난은 현존하는 지식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 또는 기술로 인한 위협적 결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이다(Quarantelli, 1985). 재난의 특성과 진행 양상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UNISDR)은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구분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영규, 1995). 자연 재난은 재난위험의 친숙성, 예측가능성, 위험의 인지, 효과적 조정 가능성, 피해의 가시성, 피해자의 공통성, 지역사회의 결속도 등이 높고, 예방가능성, 2차적 피해 가능성, 환경의 불확실성, 정부의존도,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낮다. 반면 인적 재난은 재난 위험의 친숙성, 예측가능성, 위험의 인지, 효과적 조정 가능성, 피해의 가시성, 피해자의 공통성, 지역사회의 결속도 등이 낮고, 예방가능성, 2차적 피해 가능성, 환경의 불확실성, 정부의존도, 정치적 갈등의 정도 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인적 재난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자연 재난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된다(송기중, 2014; 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2014). 통제의 문제는 책

임의 문제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책임의 관점에서 인적 재난은 통제 상실로 설명되고, 자연 재난은 통제의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다(Baum et al., 1983). 통제의 상실은 궁극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 또는 조직이 재난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의 결핍은 재난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것을 뜻하며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 재난은 자연 재난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일으킨다(Norris et al., 2002). 인적 재난 피해자들은 물리적 피해에 따른 고통도 겪게 되지만, 정의사회 신념의 좌절을 경험하고 조직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소외감과 분노 등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Lambourne, 2009).

재난은 불확실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Comfort, 1988). 재난의 불확실성은 위협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데, 불확실성은 위협이 예측 불가능할 때, 위협에 관한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Babrow, Kasch, & Ford, 1998). 위협의 불확실성은 위협에 대한 걱정,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일으킨다(Adeola, 2000; Matthies et al., 2000).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들이 모호한 것과 관련된 결과를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Ellsberg, 1961).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은 감소되기를 바라는 혐오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협과 관련해서 확실한 것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위협의 축소보다 제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면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 인지 모델(model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는데(Weary & Edwards, 1996), 인과성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 경험은 당황, 혼란,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각성시킨다(Jacobson et al., 1999).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갖고 있는 정보를 정교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에 갖고 있던 가치에 의존하기도 한다(Van den Bos et al., 2005). 맥그레거와 그의 동료들은(McGregor, Zanna, Holmes, & Spencer, 2001)은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좀 더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불확실성에 대해 사람들은 문화적 세계관에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좀 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그와 그의 동료들(Hogg, Sherman, Dierselhuis, Maitner, & Moffitt, 2007)은 불확실성 상태의 사람들이 정통성, 위계주의, 극단주의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신념 체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Weary, Jacobson, Edwards, & Tobin, 2001). 불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반응에 대해 위치먼(Wichman, 2012)은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위협적인 경우, 정보 탐색이나

정교한 정보처리 대신에 고정관념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는 등의 방어반응을 보인다 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 내집단 비판기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Arnd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Simon, 1997), 사회적 이탈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Van den Bos, 2001), 극단적 그룹과 동일시(Hogg, et al., 2007)하는 등의 방어 반응을 보인다(Mcgregor et al., 2001).

2. 피해자 비난

비난에는 4가지 속성이 있다(Malle, Guglielmo, & Monroe, 2014). 먼저, 비난은 인지적이고 사회적이다. 비난은 정보처리와 같이 지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과정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판단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비난은 사회적 규제이다. 비난의 주된 기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범을 일탈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판단이다(Scanlon, 2008). 세 번째 비난은 인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존한다(Malle, 2008). 의도적인 일탈과 예방 가능한 행동은 높게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비난은 정당화를 요구한다. 비난받는 사람에게 강하게 손상을 주는 것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행위자가 비난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한다(McKenna, 2012).

비난의 단계를 설명하는 비난 경로 모델(Path Model of Blame)은 원인, 행위자, 의도를 근거로 비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한다(Malle, Guglielmo, & Monroe, 2014). 먼저 비난은 사회적 규범에 일탈하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규범을 일탈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의도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관찰자는 행위자의 행위 이유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정당하다면 최소한의 비난을 받게 되지만,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비난은 높아진다. 반면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한다. 이와 같이 비난경로 모델에서 비난은 규범적인 의사결정(normative decision stage)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Alicke, 2000).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이성적 과정을 거쳐서 비난을 판단하지 않는다.

앨리케(Alicke, 2000)는 규범적 의사결정 모델로는 사회적 기대를 일탈하는 비난의 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난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과 동기 편향을 결합한 과실통제모델(culpable control model)을 제시했다. 과실통제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통제에 대한 판단과 비난 귀인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적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가 행위자의 통제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적 평가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관찰자들은 행위자의 의도, 행위, 결과 등 통제의 세 요소들 간을 구조적 연결(structural linkage)을 통해 얻어

지는 정보로 행위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평가(spontaneous evaluation)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각적 평가는 위해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과실통제 모델에 따르면 부정적인 즉각적 평가는 1) 행위자의 인과적 통제 기준을 변경시키고 2) 통제 증거의 중요성과 의미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3) 관찰자들이 비난을 지지하는 정보 탐색을 유도하면서 비난을 타당화하는데 기여한다(Alicke, 2000, 2014).

즉각적 평가는 의도, 행위, 결과 간의 연결이 모호한 상황에서 촉진된다(Alicke, 2000, 2014). 관찰자들은 위해한 사건에서 사건 원인을 외적인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개인적 성향(personal dispositions)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art & Honore, 1959). 예를 들어 메르스 감염 확산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염 원인을 병원 시스템과 국가의 위기 대응 체계 미흡 등의 외적 요인으로 돌리기보다는 피해자의 과실로 귀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이 먼 경우가 가까운 경우보다 더 많은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상황적 요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지 않고 개인의 기질적 요인으로 귀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처럼 피해자 비난은 광범위한 사회 문제 및 조건이 개인적 문제로 취급되며(Grauerholz & Copenhaver 1994),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Phelan, Link, Moore, & Stueve, 1997), 구조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각적 평가가 통제 기준을 변화시키는 명확한 사례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다. 레너(Lerner, 1980)는 사람들이 행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Heider, 1958),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대면하면서 정의사회에 대한 신념이 위협을 받는다(Alicke, 2000). 과실통제 모델에서는 정의사회 신념을 회복시키고자하는 동기가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즉각적 평가를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의 통제 수준을 높게 판단하게 한다. 피해자들이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비난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위험 또는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 비난을 비롯한 행위자의 행동 원인 추론에 대한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위기 원인에 따른 귀인 연구에서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서 기질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된다(Gilbert & Malone, 1995). 기질적 요인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상황적 요인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의 책임 귀인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

회적 거리를 멀게 느낄 경우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외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남궁민·박현순, 2018). 미디어가 재난을 보도할 때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의 책임을 밝히려려고 하는데, 피해의 책임을 분석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홍주현과 나온경(2015)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개선하는 경우, 언론 보도는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피해자들을 갈등을 조장하거나 정부에 반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며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보도는 재난 뿐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도 나타난다(최현주, 2009; 홍지아, 2009).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면서 이들을 비난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사건 또는 재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면서 이들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3. 공감적 분노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다(Bischof-Köhler, 2012). 클라크(Clark, 2007)에 의하면 공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타인의 고통에 주목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느끼기는 타인의 고통 혹은 괴로움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게 한다. 반응하기는 고통을 겪는 타인을 돕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다(Kanov et al., 2004).

공감은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특히 이타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Batson, Ahmad, Lishner, & Tsang, 2016).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돕거나 혹은 도우려고 계획하는 행동으로 친사회적 행위의 원인은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설명된다. 사회적 규범은 상호성, 책임감, 그리고 정의를 포함한다. 상호성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자세로 교환을 의미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받은 몫을 되돌려주지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다. 특히 사회적 책임감은 도움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에 무관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의식이다(Schwartz, 1975). 낮은 수준의 공감은 공격적 행동, 따돌림, 폭력 등과 관련이 있고(Goleman, 1994), 높은 수준의 공감은 왕따 피해자에 대한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ini, Albiero, Benelli, & Altoè, 2007).

공감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된다(Davis, 1983).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 정서, 의도 등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과 유대를 형성한다(Galinsky, Ku, & Wang, 2005). 반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을 보이거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Batson, Early, & Salvarani, 1997). 이타적 행위에 대한 공감의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인지적 공감보다 감정적 공감을 더 중시해왔다(Einolf, 2012). 베이츰(Batson, 2011)은 감정적 공감을 격려 받는 상황에서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했다. 에델, 디지오백 그리고 켈러(Edele, Dziobek, & Keller, 2013)도 정서적 공감이 도움 행동을 예측하는 반면, 인지적 공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연구한 마자노비크와 그의 동료들(Marjanovic, Struthers, & Greenglass, 2012)은 인적 재난에서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책임과 타인을 돕는 것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지적 공감은 재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희생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희생자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은 슬픔과 고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Hoffman, 1990). 그렇다면 피해자와 공감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될까? 호프만(Hoffman, 1989)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 귀인이 공감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귀인한다면 슬픔보다는 관찰자들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 또는 가해 상황에 대해 공감적 분노(empathic anger)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인과관계 귀인을 시도한다(Weiner, 1985). 만약 피해자가 상황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단서들이 있고, 환경 또는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관찰자들의 관심은 환경이나 가해자에게 옮겨간다.

그렇다면 공감적 분노도 이타적 행위에 동기가 될 수 있을까? 분노는 행위의 강력한 동인으로(Davidson, Jackson, & Kalin, 2000), 일반적으로 분노는 공격 행위의 동기로 알려져 있지만, 분노에 대한 반응은 비공격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van Doorn & Zeelenberg, 2014). 도덕적 분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다. 공감적 분노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충동을 자극하고(Wakslak, Jost, Tyler, & Chen, 2007), 피해자를 돕는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itaglione & Barnett, 2003).

4. 사회적지지, 공감, 그리고 피해자 비난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재난 관리는 적응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서지영·조규진, 2014; 전대욱·최인수, 2014). 이런 이유로 재난 맥락에서 공동체의 적응 능력을 증시하는 탄력성(resilience) 개념과 그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해왔다(Walter, 2004). 심리학에서 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Block & Kremen, 1996). 재난의 맥락에서 탄력성은 재난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unga, 2007).

사회적 지지는 공동체 탄력성과 긍정적 관련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다(Panton & Johnston, 2001; Pfefferbaum et al., 2005).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에 포함시키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개인들은 사랑받고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다(Barrera, 1986). 사회적 지지는 내용에 따라 감정적, 도구적, 정보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Cohen & Willis, 1985). 감정적 지지에는 돌봄, 공감, 사랑, 신뢰가 포함된다.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된다. 도구적 지지도 사랑과 보호 등을 전달하지만 금전적 지원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을 돕는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공동체, 전문적인 재난 활동가,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시민들이 구출과 보호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 이동(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타적인 지지는 지속되지 못한다. 재난이 진행되면서 네트워크 변화, 활동 쇠퇴, 그리고 갈등 잠재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난 발생 초기에 나타났던 공동체의 이타적인 행위와 협력이 감소하면서 인식된 지지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인식된 지지의 악화가 가속화되지 않는다. 재난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인식된 지지는 수신된 지지를 통해서 악화가 억제되는 사회적 지지 악화 억제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deterrence)가 나타난다(Kaniasty & Norris, 2004). 수신된 지지가 많을수록 인식된 지지가 높았고, 인식된 지지가 높을수록 고통이 감소된다. 결국 재난에서 사회적 지지는 고통을 감소시켜는 안전장치(bumper)로 작용한다.

공감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요인이다(Trobst, Collins & Embree, 1994).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했고, 사회적 지지와 공감과의 관계가 도움 행위와 공감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mato, 1990). 공감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레게르와 그의 동료들(Regehr, Godlberg, & Hughes, 2002)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공감이 오히려 외상 후 장애 수준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감정적인 거리를 두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은 2차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의 특성에 따라 재난의 피해를 증가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상호 간 갈등 경험을 줄이고(Davis &

Kraus, 1991),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제공을 증가시키는(Underwood & Moore, 1982) 등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Davis, 2004).

비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범을 일탈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판단이다(Scanlon, 2008). 하지만 재난 피해자는 규범을 일탈하거나 비도덕적 행위에 규제로서가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태도나 행위에 대한 판단과 평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피해를 통제하고자 욕구를 드러낸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재난 통제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피해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역설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적응하는 행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하는 대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Rook, 1987). 예를 들어 관심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료나 친구들 간의 사회적 지지는 호의에 기반한 반면, 가족 간의 사회적 지지는 의무가 수반된다. 사회적 지지의 성격을 구분해볼 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무가 수반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자하는 욕구의 표현으로서 피해자 비난은 역설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적응하려는 행위의 동기로 작용해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가설과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 연구는 위협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공중 반응으로서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차이와 각 반응들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피해자 비난 기제를 분석하고 피해자 비난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Weary & Edwards, 1996), 인과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 경험은 당황, 혼란,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각성시킨다(Jacobson, Weary, & Edwards, 1999). 따라서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 공감적 분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협의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를 정교화하기보다 고정관념, 편견 등의 단순화된 인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Van den Bos et al.,

2005).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은 피해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개인적 성향으로 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통제수준을 높게 판단하고,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비난을 높게 된다(Alicke, 2000). 위험의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간주되는 경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집단 편향과 동일시 등의 방어반응을 유도한다(Arnd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Simon, 1997). 따라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의 있고 없음은 내집단 편향을 유도해서 연대감과 애착감에 기인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적 재난은 재난 위험의 친숙성, 예측 가능성, 위험의 인식이 낮고, 예방 가능성, 2차 피해 가능성, 불확실성 등이 높다. 반면, 자연 재난은 재난 위험의 친숙성, 예측가능성, 위험 인식이 높고, 예방 가능성, 2차 피해 가능성 불확실성이 낮다. 특히 인적 재난은 통제가 가능한 재난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통제의 상실에 따르는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연 재난은 통제가 불가능한 재난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인간의 취약성은 피해자와의 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던 인적 재난의 피해자들과의 연대감보다 높아 사회적 지지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에 따라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재난 유형에 따라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라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예지치 못한 재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이다(Shaver, 1985). 사회적 지지는 주체적인 능력으로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데(Cohen & Syme, 1985),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역설적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서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판단, 공감적 분노, 피해자 비난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에 대한 공감적 분노,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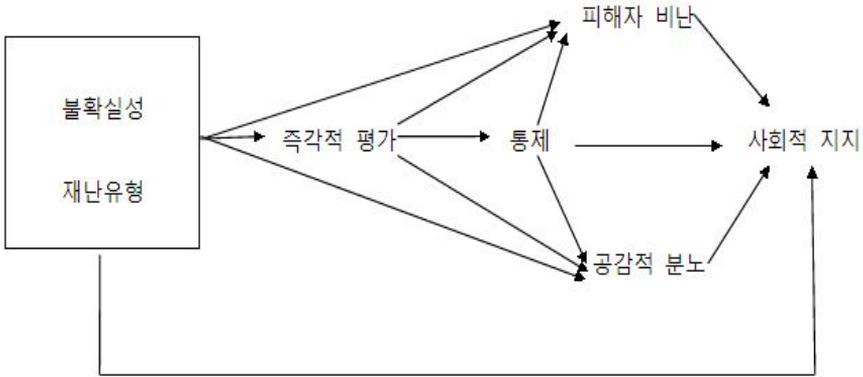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델

위에서 논의한 위험의 불확실성 유무와 재난 유형에 따른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피해자 비난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피해자 비난 그리고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에도 반영되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위험의 불확실성 유무와 재난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재난에 즉각적 평가, 재난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의 유무와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 공중들의 반응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설계는 2(메시지 유형 : 불확실성 있음 vs 불확실성 없음) x 2(재난 유형: 인적 재난 vs 자연 재난)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요인은 피험자 간 요인으로

(between-subject factor) 설계했다. 메시지는 기사 형식으로 제시했고, 메시지의 구성은 제목, 기사 본문, 그리고 기자명(가명)과 언론사명(가명)을 포함시켰다. 재난의 유형은 재난 원인에 따라 분류되는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으로 구분했다.

사회 인지 모델(model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Weary & Edwards, 1996). 이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고,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선행연구들은 위협의 불확실성 유형을 1) 측정의 불확실성, 2) 시간적 불확실성, 3) 구조적 불확실성, 4) 번역의 불확실성, 5) 전문가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확실성, 6)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 7) 동물 연구 결과를 인간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 등으로 구분했다(Haimes et al., 1994; Miles & Frewer, 2003; Peterman and Anderson, 1999; Pidgeon and Beattie, 1997; Rowe, 1994; Woodward and Bishop, 1997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을 '재난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불확실성 제시는 재난위험의 불확실성 정의에 따라 재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의 불일치와 전개 과정(추가 발생)의 가능성을 단일한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였다. 반면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없는 메시지는 재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전개 과정(추가 발생) 가능성을 단일한 수치로 제시하였다.

재난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으로 구분하였다. 인적 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고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처치의 사례로 인적 재난은 아파트 붕괴로 제시했고, 자연 재난은 지진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붕괴와 지진은 발생 원인이 다르지만 피해 양상과 결과가 순간적으로 대규모 붕괴 피해가 발생한다는(김용균, 2018) 공통점을 갖고 있어, 실험처치로서 재난 원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2. 연구 절차

가. 연구 대상 선정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 기관을 통해서 모집되었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메시지의 있고 없음과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의 유형별로 4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집단에 100명씩 참가자들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재난으로부

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밝혔다. 성별과 연령을 묻는 질문을 배치 후 재난 기사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각 1)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가 있는 아파트 붕괴 관련 기사 2)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가 없는 아파트 붕괴 관련 기사 3)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가 있는 지진 관련 기사, 4)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가 없는 지진 관련 기사 등의 기사를 읽고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했다. 불성실한 응답을 줄이기 위해서 기사를 30초 이상 읽어야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재난 기사를 읽은 후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적 점검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재난 사건에 대한 즉각적 평가, 재난 피해자의 통제 수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 요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 수입,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고, 완성하게 되면 설문을 종료하였다.

나. 메시지 조작

메시지는 기사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는 아파트 붕괴 기사의 경우, 1) 전반부에 아파트 붕괴 현장이 묘사되었다. 2) 이후 붕괴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이 묘사되었다. 3) 다음으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제시되었다.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불일치한다고 밝히고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범위로 제시하였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묘사하였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없는 아파트 붕괴 기사의 경우,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는 기사와의 차이는 세 번째 부분을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단일한 숫자로 제시하였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는 지진 기사의 경우, 1) 전반부에 지진 현장이 묘사되었다. 2) 이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이 묘사되었다. 3) 다음으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제시되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 확률을 범위로 제시하였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묘사하였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없는 지진 기사의 경우, 불확실성이 있는 기사와의 차이는 세 번째 부분으로 지진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추가 지진 발생 확률을 단일한 숫자로 제시하였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

과실통제(culpable control)모델(Alicke, 2000)은 비난을 판단하는 중심 요인으로 즉각적 평가(spontaneous evaluation)를 제시했다. 즉각적 평가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적 반응으로 사건에 대한 감정 평가이다. 브라이트와 굿맨(Bright & Goodman-Delahunty, 2006)은 감정 상태 척도(Profile to Mood States, McNair, Lorr, & Droppleman, 1981)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감정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에서 부정적 감정 문항을 재구성해 즉흥적 평가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즉각적 평가를 형용사만을 제시해서 측정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붕괴와 지진 상황에 대한 공포, 불안, 혐오 등의 부정적 감정 반응을 진술문으로 작성해서 측정하였다. '아파트 붕괴/지진은 공포스러운 사건이다', '아파트 붕괴/지진은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다', '아파트 붕괴/지진은 두려운 사건이다', '아파트 붕괴/지진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등의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통제 수준 판단

과실통제 모델에서는 행위자들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사건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해서 비난을 판단한다. 재난 피해자의 재난에 대한 통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재난을 예측하거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통제 수준의 판단은 인과 관계 귀인(Russell, 1982)의 하위 척도 중 통제성(controllability)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의 통제 수준 판단을 인과 관계 귀인 척도에서 통제성 요인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재난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었다' 등의 세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피해자 비난

피해자 비난과 관련한 측정 도구들은 강간 피해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들로, 비난 대상으로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상황과 행위 요인으로 구분해서 측정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난에서 피해자 비난은 강간 피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이 구분되거나 구체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우연적인 비난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

자 비난을 연구한 선행연구들(Hirschberger, 2006; Van Prooijen & Van den Bos, 2009; Zagefka, Noor, Brown, de Moura, & Hopthrow., 2011)에서 사용한 비난 측정 문항을 재난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재난 상황을 피했어야했다', '고통을 받는 것은 피해자들의 책임이다', '재난 결과에 책임이 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운명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등의 6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공감적 분노

공감적 분노는 피해자와의 공감에 근거해 피해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다(Hoffman, 1989). 공감적 분노 측정은 바이테그라이온과 바네트(Vitaglione & Barnett, 2003)가 타당화한 7개 문항 중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3개 문항을 선택해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재난 피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나는 분노를 느낄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분노할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이 희생된다면, 나는 분노를 느낄 것이다' 등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사회적 지지

캐니아스티와 노리스(Kaniasty & Norris, 1992)는 바레라와 그의 동료들(Barrera, Sandler, & Ramsay, 1981)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의 40개 문항 중에서 12개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12개 문항은 감정적 지지(관심의 표현, 확신, 감정, 친밀감), 정보적 지지(제안, 피드백주기, 상황을 이해하는 정보 전달,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정보 전달), 실질적 지지(금전적 지원, 수송 지원, 거처 지원, 돈 이외의 다른 것들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공중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캐니아스티와 노리스(Kaniasty et al., 1992)가 사용한 문항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교체해 문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제공한 기사에 근거해서 보내는 사회적 지지임을 감안해서 추가적 정보 탐색과 상황 이해를 요하는 정보적 지지를 제외하고 물질적 지지와 감정적 지지 요인을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아파트 붕괴와 지진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해서 각각 2개 문항씩으로 측정하였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할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등의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의 검증은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 피해자의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 요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 변인들에 대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의 있고 없음 그리고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을 통해 경로를 분석하였고, 변인들 간의 직간접 경로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변인 간의 경로가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는 메시지와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V. 연구 결과

1. 기초 분석결과

가.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이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 회사를 통해서 4가지 설문지를 성별과 연령을 인구비례에 맞춰 무작위 할당하였다. 회수된 총 400개의 응답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20개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380부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은 남성과 여성 각각 190명이었다. 20대가 23.2%, 30대가 26.8%, 40대가 25.5%, 그리고 50대가 24.5%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2%, 대학 재학생이 8.7%, 대학 졸업이 70.5%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8.7%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소득 없음이 5.8%, 100만원 미만이 7.1%,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12.4%,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24.5%,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16.6%, 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이 7.1%, 600만원 이상 13.4%로 나타났다.

나. 시나리오 조작 점검

불확실성 메시지의 조작 점검은 '위의 기사에서 재난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기사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기사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최댓값에서 최솟값까지 범위로 불확실하게 예측되었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메시지를 할당받은 집단과 불확실성이 없는

메시지를 할당받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있는 메시지를 할당받은 집단의 평균은 3.86(SD = .67)로 나타났고, 불확실성이 없는 메시지를 할당받은 집단의 평균은 2.69(SD = .67)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 = 15.656, p = .000$).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메시지 조작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신뢰도

즉각적 평가를 측정하는 4개 문항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 .718로 나타나 즉각적 평가 요인의 신뢰도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 .717로 나타나 통제 수준 요인의 신뢰도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비난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 .804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신뢰도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 .875로 나타나, 피해 상황에 대한 공감적 분노의 신뢰도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889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신뢰도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즉각적 평가 측정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재난은 공포스러운 사건이다.	4	.718
재난은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다.		
재난은 두려운 사건이다.		
재난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통제 수준 측정 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	3	.717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었다.		
피해자 비난 측정 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상황을 피했어야 했다.	6	.804
재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의 책임이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운명이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공감적 분노 측정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재난 피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나는 분노를 느낀다.		
재난 피해자들이 희생된다면, 나는 분노를 느낀다.	3	.875
재난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분노를 느낄 것이다.		
사회적 지지 측정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재난 피해자들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4	.889
재난 피해자들에게 친절함을 나타낼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는 피해 요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통계 수준 판단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 요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는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변인	M	SD	성별	연령	즉각적평가	통제 수준	비난	공감적 분노
연령	2.513	1.098	-.012					
즉각적 평가	3.567	.618	.141*	.120*				
통제수준	2.250	.911	.020	.054	.061			
비난	2.273	.873	-.100	.067	.062	.316**		
공감적 분노	3.447	.856	.094	.150*	.348*	.092	-.010	
사회적 지지	2.779	.873	-.065	.226**	.068	-.024	.189**	.178*

* : $P < .01$, ** : $P < .001$

2. 연구 결과

가. <가설 1, 2, 3>의 결과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유무 메시지와 재난 유형에 따라 즉각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성별과 연령이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재난 경험도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 재난 경험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성별, 연령 그리고 재난 경험을 통제한 후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없는 메시지보다 있는 메시지에서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재난보다 인적 재난에서 즉각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유무와 재난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 재난보다 인적 재난에서 공중들은 재난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통제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음은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의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메시지와 재난 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메시지의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공중들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공감적 분노를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난 유형에 있어서 자연 재난보다 인적 재난에서 피해자와 공감에 근거한 공감적 분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있고 없음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는 인적 재난보다 자연 재난에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난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인적재난 = 2.97, 자연재난 = 2.62)의 차이를 독립 표본 t 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재난 유형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 = -2.822, p = .005$).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 재난보다 인적 재난에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재난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공중 반응의 차이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피해자 비난	
	<i>F</i>	<i>p</i>	<i>F</i>	<i>p</i>	<i>F</i>	<i>p</i>
성별	7.215	.008	.090	.764	3.777	.053
연령	4.313	.039	1.955	.163	1.997	.158
재난경험	.166	.684	4.952	.027	1.104	.294
불확실성(A)	20.093	.000	.867	.352	.000	.990
재난유형(B)	27.666	.000	47.528	.000	2.065	.152
A * B	.222	.808	.825	.364	.022	.883

	공감적 분노		사회적지지	
	<i>F</i>	<i>p</i>	<i>F</i>	<i>p</i>
성별	3.214	.074	1.410	.236
연령	9.635	.002	22.244	.000
재난경험	1.016	.314	2.142	.144
불확실성(A)	3.755	.053	.141	.708
재난유형(B)	9.068	.003	.980	.323
A * B	.000	.998	4.400	.037

표 4.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불확실성	재난유형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피해자 비난	
		M	SD	M	SD	M	SD
없음	자연	3.294	.561	2.028	.899	2.234	.735
	인적	3.585	.557	2.541	.819	2.314	.829
있음	자연	3.530	.644	1.879	.871	2.221	.902
	인적	3.851	.585	2.218	.928	2.322	1.01

불확실성	재난유형	공감적 분노		사회적 지지	
		M	SD	M	SD
없음	자연	3.231	.848	2.756	.835
	인적	3.484	.891	2.769	.897
있음	자연	3.408	.879	2.974	.810
	인적	3.660	.760	2.622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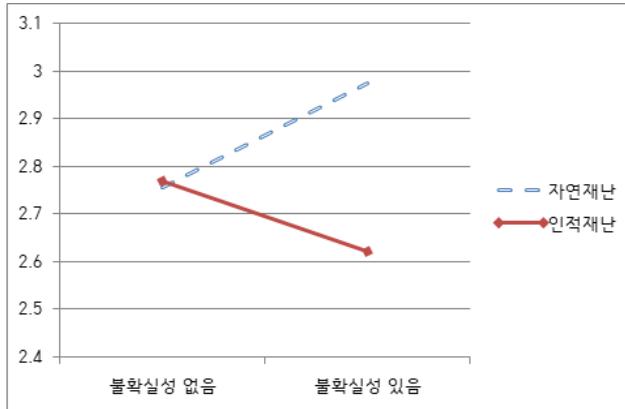


그림 2.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나. <연구문제 1>의 결과

(1) 경로 분석

모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구인 타당도를 확인할 때,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0.7 이상은 되어야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1). 하지만 현실적으로 0.7 이상으로 분석되지 않는 지표 변수들도 있는 것을 고려해 0.5 수준의 표준 부하 추정치를 갖는 것은 수렴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는 값으로 클라인(Kline)은 0.9 이하를 제안하였는데, 각 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이 0.9 이하로 나타나 변별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확인은 χ 검정, CFI, RMSEA, SRMR 등 4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Boomsma, 2000; Kline, 2011). χ 검정은 모형의 적합도를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χ 검정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데,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표본의 크기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숫자,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수의 숫자가 많을수록, 관찰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χ 의 값이 커진다. 이로 인해 χ 검정이 실패한다고 해도,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형 분석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chi = 384.785$ (df = 140, p = .000)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다른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FI = 0.934, RMSEA = 0.068(90% C.I. = 0.060 - 0.076), SRMR = 0.077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모형의 적합도도 χ 검정, CFI, RMSEA, SRMR 등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Boomsma, 2000; Kline, 2001).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 = 385.277$ ($df = 141$, $p = .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했듯이, χ 검정의 제한점으로 인해 다른 근사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RMSEA = 0.068 (90% CI = 0.060 - 0.076), CFI = 0.934, SRMR = 0.077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연구 모형 적합도 (n=380)

χ^2	df	CFI	SRMR	RMSEA
385.277	141	0.934	0.077	0.068 (0.060-0.076)

즉각적 평가와 다른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재난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재난 피해자가 재난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실통제 모델에서 제시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 평가가 피해자의 통제 수준을 높게 판단하게 하고 피해자 비난을 초래한다는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 인지적 편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이다.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공감적 분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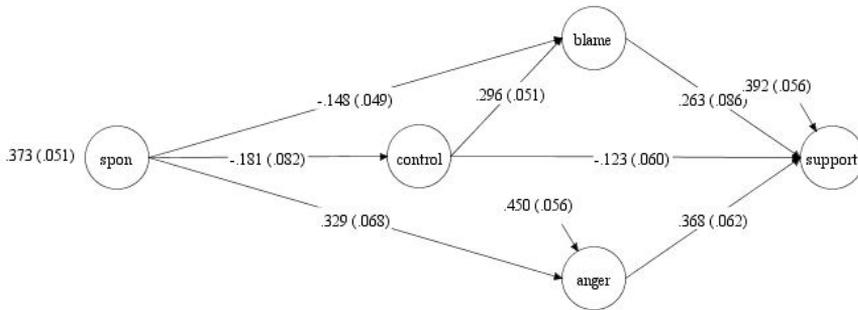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가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재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높게 판단할수록 피해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감적 분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높게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나는 역설적 관계가 드러났다. 반면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을 높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가 재난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실질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재난 발생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지만, 피해자가 재난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피해자 비난이 증가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공중들은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과 상황을 모면하지 못한 책임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분노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연구모형의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즉각적 평가 → 통제 수준	-0.181*	0.082	-0.140
즉각적 평가 → 피해자 비난	-0.148**	0.049	-0.168
즉각적 평가 → 공감적 분노	0.329***	0.068	0.286
즉각적 평가 → 사회적 지지	-0.044	0.065	-0.040
통제 수준 → 피해자 비난	0.296***	0.051	0.435
통제 수준 → 공감적 분노	0.101	0.055	0.113
통제 수준 → 사회적 지지	-0.123*	0.060	-0.142
피해자 비난 → 사회적 지지	0.263**	0.086	0.206
공감적 분노 → 사회적 지지	0.368***	0.062	0.377



spon : 즉각적 평가, control : 통제 수준, anger : 공감적 분노
 blame : 피해자 비난, support : 사회적 지지

그림 7. 연구모형 중 유의미한 경로

(2) 직간접 효과

반응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통제 수준-피해자 비난 간에는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는 피해자 통제 수준 판단을 매개로 피해자 비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즉각적 평가-피해자 비난 간의 직접 효과도 유의미했고, 총효과도 부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즉각적 평가-통제수준-공감적 분노 간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각적 평가가 공감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했고, 총효과도 부적으로 유의미했다.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 피해자의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에 대한 비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피해자 비난-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와 즉각적 평가-공감적 분노-사회적지지 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즉각적 평가-사회적지지 간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총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반응인 즉각적 평가는 피해자 비난을 매개로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지만, 공감적 분노를 매개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즉각적 평가에서 사회적 지지에 이르는 총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7. 직간접 효과

		변인 간 경로	비표준화	표준 오차	표준화
비난	간접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비난	-.054*	.031	-.061
	직접	즉각적 평가- 비난	-.148**	.051	-.168
	총효과	즉각적 평가- 비난	-.201***	.053	-.229
공감적 분노	간접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공감적 분노	-.018	.016	-.061
	직접	즉각적 평가- 공감적 분노	.326***	.080	.286
	총효과	즉각적 평가- 공감적 분노	.311***	.078	.271
사회적지지	간접	즉각적 평가- 피해자 비난- 사회적 지지	-.039*	.017	-.035
	간접	즉각적 평가- 공감적 분노- 사회적 지지	.121***	.031	.108
	간접	즉각적 평가-통제 수준-사회적 지지	.022	.015	.020
	간접	즉각적 평가- 통제 수준- 피해자 비난- 사회적 지지	-.014	.008	-.013
	총효과	즉각적 평가- 사회적 지지	.091*	.037	.081

다.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는 메시지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구조 방정식 모형의 형태 동일성을 확인하고 이후 측정 동일성을 확인한다. 완전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분측정 불변성을 확보하였

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측정 불변성이 만족된 상태에서 잠재 변수 간의 경로계수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불변성 검증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리틀(Little, 1997)은 형태 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 동일성까지 확보한 후 구조 모형의 경로 동일성을 분석해야한다고 하지만, 클라인(Kline, 2011)은 구조 방정식 모형의 형태 동일성과 측정단위 동일성이 확인된 후에는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클라인이 절편 동일성 확인을 제외시킨 것은 구조 방정식에서 경로계수를 확인하는 것의 의미와 관련된다. 경로계수에 있어서 집단 간 동일성이라는 것은 집단 간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가 동일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편 동일성은 변수 간의 위치가 동일한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아니다(김수영,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클라인의 주장을 수용해서 형태 동일성과 측정단위 동일성을 확보한 후 경로계수 동일성을 검증하면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는 메시지를 제시받은 집단과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없는 메시지를 할당받은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두 집단 간의 형태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chi^2 = 554.679$ ($df = 282$, $p = .000$)로 통계적으로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FI = 0.928$, $RMSEA = 0.071$ (90 % C. I. = 0.063 - 0.080), $SRMR = 0.084$ 로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였고,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단계로 측정단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영가설은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분석결과 자유도가 14개 증가하면서 검정의 차이는 9.326(564.005-554.6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실패함으로써($p = .810$),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9개의 잠재변수 간 경로를 모두 제약한 후 제약을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으로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잠재 변수 간 경로 제약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자유도를 1씩 높여가면서 두 모형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잠재 변수 간 경로의 차이가 없었다.

재난 유형에 따라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효과가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chi^2 = 502.3568$ ($df = 282$, $p = .000$)로 통계적으로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FI = 0.941$, $RMSEA = 0.064$ (90 % C. I. = 0.055 - 0.073), $SRMR = 0.082$ 로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

여, 형태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측정단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영가설은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분석결과 자유도가 14개 증가하면서 χ^2 검정의 차이는 42.233(544.589-502.3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함으로써($p = .0001$), 완전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한 측정단위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분측정 동일성을 검정하였다(Byrne, Shavelson, & Muthen, 1989).

부분측정 동일성은 모든 모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 중 일부를 집단 간에 다르게 허용하는 것이다. 측정단위 동일성 제약을 할 때 1로 고정된 요인 부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 부하를 재난 유형 간 동일하다고 제약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 모수가 집단 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고, 다른 모수들에 대해서 측정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분측정 동일성 검정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김수영, 2016). 측정모형의 완전한 동일성이 구조 모형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Cheung & Rensvold, 2000). 하지만 측정모형의 동일성과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구분해서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가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부분측정 동일성을 허용할 수 있다(Byrne et al., 1989). 이 연구에서도 측정 동일성과 구조 모형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부분측정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부분측정 동일성 확인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느 요인들의 차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태 동일성 모형에서 요인 부하 추정치를 확인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요인 간의 부하 값의 차이를 허용하였다. 두 집단 간의 모수들의 요인 부하 값을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요인 부하 추정치가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통제성의 두 번째 요인의 부하 값이 인적 재난의 경우는 0.771이고, 자연 재난에서는 1.1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모수를 다르다고 가정해서 부분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을 추정하였다.

부분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을 검정한 결과 자유도가 13개 증가하면서 χ^2 차이는 17.281(519.637-502.3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χ^2 차이 검정에서 두 모형의 적합도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에 실패함으로써($p = .186$), 부분 측정단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 측정단위 동일성이 만족된 상태에서 각 경로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9개의 잠재 변수 간 경로를 모두 제약한 후 제약을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잠재 변수 간 경로 제약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자유도를 1씩 높여가면서 두 모형 χ^2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제 수준-공감적 분노 간 경로에서 재난 유형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 재난에서는 피해자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적 분노가 증가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적 재난에서는 피해자의 통제 수준이 공감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의 재난 통제 수준을 높게 판단하여도 피해에 대한 공감적 분노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 유형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경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자연 재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적 재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붕괴 재난에서는 붕괴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켰다.

재난 유형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이는 마지막 경로는 통제 수준 - 사회적 지지에 이르는 경로이다. 이 경로의 재난 유형 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지만,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 모두에서 통제 수준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 재난 유형의 다집단 분석

	χ^2	df	CFI	SRMR	RMSEA
경로모형	385.277	141	0.934	0.077	0.068 (0.060- 0.076)
형태동일성	502.356	282	0.941	0.082	0.064 (0.055- 0.073)
측정동일성	544.589	296	0.933	0.094	0.066 (.058- 0.075)
차이검정	$\chi^2_D = 544.589 - 502.356 = 42.233, df_d = 296 - 282 = 14, p = .0001$				
부분측정 동일성	519.637	295	0.940	0.086	0.063 (0.054- 0.072)
차이검정	$\chi^2_D = 519.637 - 502.356 = 17.281, df_d = 295 - 282 = 13, p = .186$				
경로 제약	534.842	304	0.938	0.093	0.063 (0.054- 0.072)
차이검정	$\chi^2_D = 534.842 - 519.637 = 15.205, df_d = 304 - 295 = 9, p = .085$				

표 9. 재난 유형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

변인 간 경로	유형	표준화
통제 수준 → 공감적 분노	자연 재난	.205*
	인적 재난	-.064
피해자 비난 → 사회적 지지	자연 재난	0.105
	인적 재난	0.240**
통제 수준 → 사회적 지지	자연 재난	-0.156
	인적 재난	0.051

VI. 결론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는 위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 심리학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가치관 신념에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불확실성이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보상적 차원에서 비규범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재난 공중들의 재난과 재난 피해자와 관련된 반응에 주목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공중들의 반응들 중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게 큰 충격과 손실을 주었던 재난들에서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과실통제 모델에서 피해자 비난은 관찰자들이 피해자가 그 사건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찰자들이 피해자의 사건 통제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서 피해자들의 사건 통제 수준을 높게 판단하면서 비난을 타당화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비난은 책임의 문제로 재난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피해자 비난의 책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재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재난 유형과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인적 재난은 자연 재난과 비교해서 통제가 가능한 재난으로 인식된다. 인적 재난은 발생 이전에 통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처 능력을 상실한 재난이다. 따라서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은 피해자 비난을 일으키는 공중 반응들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중들은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가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서 즉각적 평가, 재난 피해자의 재난 통제 수준 판단, 재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들에 대한 공감적 분노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를 보였다.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메시지는 재난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었고, 재난 유형은 즉각적 평가와 공감적 분노와 같은 감정적 반응 뿐 아니라 통제 수준 판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 유무는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인적 재난보다 자연 재난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재난 공중들은 재난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경우 인적 재난보다는 자연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적 그리고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보냈다. 재난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

는 경우, 재난 공중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인적 재난보다 통제가 불가능해서 인간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자연 재난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그리고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보냈다.

이 연구는 재난에 대한 즉각적 평가, 통제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지지 등 공중들의 반응들 간의 관계를 모델로 설정해 피해자 비난이 발생하는 기제와 피해자 비난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의 결과는 과실통제 모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실통제 모델에서는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통제 수준에 대한 판단이 높아져 피해자 비난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난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즉각적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비난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의 통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 비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난에 대한 공포가 높을수록 피해자 비난은 감소하지만, 피해자가 재난 발생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피해자 비난은 증가했다. <연구문제 2>의 결과에 의하면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의 있고 없음과 재난 유형에 따른 모델 전체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난 유형에 따라서는 세부 경로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제 수준 - 공감적 분노 간의 경로에서는 자연 재난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인적 재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난 - 사회적 지지 간의 경로에서는 인적 재난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자연 재난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재난 공중들은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이 재난 발생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도 피해 자체에 대해 공감적 분노를 증가시켰고, 인적 재난의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문제 1>의 결과로 나타난 통제 수준 판단 그리고 피해자 비난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재난 발생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비난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다. 즉 재난 공중들은 재난 발생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켰지만, 재난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자 비난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방어적 귀인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방어적 귀인 이론(defensive attribution)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일으키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재난의 피해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인지적 위협을 지각하게 되고, 인지적 위협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도하고 방어기제를 활성화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Shaver, 1985). 즉 재난 공중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고 죽음과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반응이라는 것이다. 재난에 노출된 인간의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로서 피해자 비난이 재난의 취약성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재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실무적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비난이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통제감과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이라는 접근을 취하게 될 때, 미디어의 재난 보도 태도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재난 공중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재난을 접하게 되는데, 재난 보도가 선정적이고 경쟁적 형식을 취하면서 재난 공중들이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지적 위협을 느끼게 되면 방어반응으로서 피해자 비난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재난보도에 있어서 재난 공중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재난 보도 준칙의 이행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위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재난이 자연 재난보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낮아졌는데, 현실적으로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사회에서 특히 인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재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이 재난 공중들의 반응을 통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은 재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변인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설계와 측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통제 수준 판단, 피해자 비난, 공감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은 피해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는지에 근거하는데, 아파트 붕괴나 지진과 같이 재난 피해의 귀인은 피해자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들 변인들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의 설계와 측정에 있어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 문헌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 학지사.
- 김영규 (1995). Disaster Planning : Should Be Agent-Specific or Generic. <지방행정연구>, 10권 1호, 199-230.
- 김용균 (2015).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 관리>. 서울 : 푸른길.
- 남궁민·박현순 (2018).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책임 귀인이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언론학보>, 62권 5호, 295-328.
- 서지영·조규진 (2014).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STEPI Insight>, 147권, 1-32.
- 송기종 (2014).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 성수대교 붕괴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유재용 (2016). <한국 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2014).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전대욱·최인수 (2014).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여건 및 전망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519권, 1-151.
- 최진봉 (2016).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현주 (2009).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젠더와 문화>, 2권 1호, 39-58.
- 홍주현·나은경 (2015).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69-106.
- 홍지아 (2009).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58-498.
- Adeola, F. O. (2000). Endangered community, enduring people: toxic contamination, health, and adaptive responses in a local context. *Environment and Behavior*, 32, 209-249.
- Alicke, M. D. (2000). Culpable control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6-574.
- Alicke, M. (2014). Evaluating blame hypotheses. *Psychological Inquiry*, 25, 187-192.
- Amato, P. R. (1990). Personality and social network involvement as predictors of helping behavior in everyday lif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31-43.
-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Simon, L. (1997). Suppression,

-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and cultural worldview defense: Exploring the psychodynamics of terror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18.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abrow, A. S., Kasch, C. R., & Ford, L. A. (1998). The many meanings of uncertainty in illness: Toward a systematic accounting. *Health communication*, 10, 1-23.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 3-21.
- Barrera Jr, M., Sandler, I. N., & Ramsay, T. B.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35-447.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51-758.
- Batson, C. D. (2011). *Altruism in hum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Ahmad, N., Lishner, D. A., & Tsang, J. (2016). Empathy and altruism. In S. Lopez, & C. Snyder (Eds.), *Oxford handbook of hypo-egoic phenomena: Theory and research on the quiet ego* (pp.161-174).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 A., Fleming, R., & Singer, J. E. (1983). Coping with victimization by technological disaster.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17-138.
- Bischof-Köhler, D. (2012). Empathy and self-recognition in phylogenetic and ontogenetic perspective. *Emotion Review*, 4, 40-48.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 461-483.
- Bright, D. A., & Goodman-Delahunty, J. (2006). Gruesome evidence and emotion: Anger, blame, and jury decision-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30, 183-202.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 456-466.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0). Assessing extreme and acquiescence response sets in cross-cultural research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187-212.
- Clark, C. (2007). *Misery and company: Sympathy in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and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mfort, L. K. (1988). *Managing disaster: Strategies and policy perspectiv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M. H., & Kraus, L. A. (1991).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relationship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3*, 75-115.
- Davidson, R. J., Jackson, D. C., & Kalin, N. H. (2000). Emotion, plasticity, context, and regulation: perspectives from affective neurosci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6*, 890-909.
- Edele, A., Dziobek, I., & Keller, M. (2013). Explaining altruistic sharing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affec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and justice sensitivit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96-102.
- Einolf, C. J. (2012). Is Cognitive Empathy More Important than Affective Empathy? A Response to "Who Helps Natural Disaster Victim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2*, 268-271.
- Ellsberg, D. (1961). Risk, ambiguity, and the savage axio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5, 643-99.

- Galinsky, A. D., Ku, G., & Wang, C. S. (2005). Perspective-taking and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 109-124.
-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 21-38.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3, 467-476.
- Goleman, D. (1994).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Grauerholz, E., & Copenhaver, S. (1994). When the personal becomes problematic: The ethics of using experiential teaching methods. *Teaching Sociology*, 22, 319-32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rschberger, G. (2006). Terror management and attributions of blame to innocent victims: Reconciling compassionate and defens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832-844.
- Hirschburg, P. L., Dillman, D. A., & Ball-Rokeach, S. J. (1986). 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Responses to the eruption of Mount St. Helens. *Media, Audience, and Social Structure*, 117-126.
- Hoffman, M. L. (1989). Empathy and prosocial activism. In N. Eisenberg, J. Reykowski, & E. Staub (Eds.), *Social and moral values* (pp. 65 - 86).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M. L. (1990). Empathy and justic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4, 151-172.
- Hogg, M. A., Sherman, D. K., Dierselhuis, J., Maitner, A. T., & Moffitt, G. (2007). Uncertainty, entitativity, and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135-142.
- Jacobson, J. A., Weary, G., & Edwards, J. A. (1999). Certainty-related belief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Social Cognition*, 17, 19-45.
- Kaniasty, K., & Norris, F. H. (1992). Social support and victims of crime: Matching event,

- support, and outcom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11-241.
- Kaniasty, K., & Norris, F. H. (2004). Social support in the aftermath of disasters, catastrophes, and acts of terrorism: Altruistic, overwhelmed, uncertain, antagonistic, and patriotic communities. *Bioterrorism: Psychological and public health interventions*, 3, 200-229.
- Kanov, J. M., Maitlis, S., Worline, M. C., Dutton, J. E., Frost, P. J., & Lilius, J. (2004). Compassion in organizational lif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 808-827.
- Karmen, A. (2012).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Cengage Learning.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mbourne, W. (2009).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 building after mass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 28-48.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New York: Plenum.
- Malle, B. F. (2008). The fundamental tools, and possibly universals, of social cognition. In R. M.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across cultures* (pp. 267 - 296). New York, NY: Elsevier/Academic Press.
- Malle, B. F., Guglielmo, S., & Monroe, A. E. (2014). A theory of blame. *Psychological Inquiry*, 25, 147-186.
- Marjanovic, Z., Struthers, C. W., & Greenglass, E. R. (2012). Who helps natural disaster victims? assessment of trait and situational predicto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2, 245-267.
- Matthies, E., Hoger, R. and Guski, R. (2000). Living on Polluted Soil: Determinants of Stress Symptoms. *Environment and Behavior* 32(2), 270 - 86.
- Mayunga, J. S. (2007).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a capital-based approach. *Summer Academy for Social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Building*, 1, 1-16.
- McGregor, I., Zanna, M. P., Holmes, J. G., & Spencer, S. J. (2001). Compensatory conviction in the face of personal uncertainty: Going to extremes and being one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72 - 488.
- Miles, S., & Frewer, L. J. (2003). Public percep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in relation to

- food hazards. *Journal of Risk Research*, 6(3), 267-283.
- McNair, P. M., Lorr, M., & Droppleman, L. F. (1981). *POMS manual* (2nd ed.). San Die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Norris, F. H., Friedman, M. J., Watson, P. J., Byrne, C. M., Diaz, E., & Kaniasty, K. (2002). 60,000 disaster victims speak: Part I. An empir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81 - 2001.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5(3), 207-239.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127-150.
- Paton, D. & Johnston, D. (2001). Disasters and communities: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preparednes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0, 270-277.
- Pfefferbaum, B., Reissman, D., Pfefferbaum, R., Klomp, R., & Reissman, D., Spencer, S., Tanielian, T., & Stein, B. (2005). Integrating behavioral aspects into community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s. In Y. Danieli, D. Brom, & J. Sills (Eds.), *The trauma of terror: Sharing knowledge and shared care* (pp.707 - 720). Binghamton, NY: Haworth Press.
- Phelan, J., Link, B. G., Moore, R. E., & Stueve, A. (1997). The stigma of homelessness: The impact of the label "homeless" on attitudes toward poor pers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 323-337.
- Quarantelli, E. (1985) What is a Disaster? The Need for Clarification in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in Research., In S. Solomon (Ed.), *Disasters and mental health: Selected contemporary perspectives* (pp.41-7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egehr, C., Goldberg, G., & Hughes, J. (2002). Exposure to human tragedy, empathy, and trauma in ambulance paramedic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 505.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News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A. M. Noll (Ed.), *Crisis Communications: Lessons from September 11* (pp. 17 - 30).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 Rook, K. S. (1987). Social support versus companionship: Effects on life stress, loneliness, and evaluations by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32.
- Russell, D. (1982). The Causal Dimension Scale: A measure of how individuals perceive ca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137-1145.
- Scanlon, T. C. (2008). *Moral dimensions: Permissibility, meaning, blame*. Cambridge, MA: Belknap Press.
- Shaver, K. G. (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ew York: Springer-Verlag.
- Schwartz, S. (1975). The justice of need and the activation of humanitarian norms.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11-136.
- Trost, K. K., Collins, R. L., & Embree, J. M. (1994). The role of emotion in social support provision: Gender, empathy and expressions of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5-62.
- Turner, R.H., Nigg, J.M., & Heller-Paz, D. (1986). *Waiting for disaster: Earthquake watch in Californi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09). 2009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 Van den Bos, K., Poortvliet, P. M., Maas, M., Miedema, J., & van den Ham, E. J. (2005).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norms and values: The impact of uncertainty and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violations and bolstering of cultural worldview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91-113.
- Van Doorn, J.,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14). Anger and prosocial behavior. *Emotion Review*, 6, 261-268.
- Van Prooijen, J. W., & van den Bos, K. (2009). We blame innocent victims more than I do: Self-construal level moderates responses to just-world threa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528-1539.
- Vitaglione, G. D., & Barnett, M. A. (2003). Assessing a new dimension of empathy: Empathic anger as a predictor of helping and punishing desires. *Motivation and*

- Emotion*, 27, 301-325.
- Wakslak, C. J., Jost, J. T., Tyler, T. R., & Chen, E. S. (2007). Moral outrage mediates the dampening effect of system justification on support for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Psychological Science*, 18, 267-27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
- Walter, J. (2004). *World disasters report 2004: Focus on community resilience*. Kumarian Press.
- Weary, G. & Edwards, J.A. (1996). Causal-Uncertainty Beliefs and Related Goal Structures. In R.M. Sorrentino & E.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3 (pp.148-181). New York: Guilford Press.
- Weary, G., Jacobson, J. A., Edwards, J. A., & Tobin, S. J. (2001). Chronic and temporarily activated causal uncertainty beliefs and stereotype us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206-219.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ichman, A. L. (2012). Uncertainty threat can cause stereotyping: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 need for structure. *Sage Open*, 2, 1-7.
- Zagefka, H., Noor, M., Brown, R., de Moura, G. R., & Hothrow, T. (2011). Donating to disaster victims: Responses to natural and humanly caused ev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353-363.

최초 투고일 2019년 4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27일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31일

〈부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 불확실성 있음 * 인적 재난

아파트 외벽 붕괴, 전문가들 붕괴 원인 의견 분분

추가 붕괴 가능성 불확실, 공포와 분노에 빠진 주민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12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의 외벽이 붕괴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음과 함께 외벽이 무너지면서 천장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들이 무너졌다.

아파트 벽이 붕괴되자 400여 가구에 거주하던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빠져나왔다.

주민들 중 어린이와 노약자 10여 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이다.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붕괴 원인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8명의 전문가들은 붕괴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고 예측하였다.

반면 7명의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붕괴 원인에 따라 추가 붕괴 가능성도 다양하게 예측되었다. 붕괴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고 예측하는 8명의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30-90%로 불확실하게 추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인근 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다. 입을 옷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대피한 이들은 붕괴 당시 공포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다는 분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지영 기자 <internetdaily.com>

2. 시나리오 2 > 불확실성 없음 * 인적 재난

아파트 외벽 붕괴, 붕괴 원인은 부실시공

추가 붕괴 가능성 60%, 공포와 분노에 빠진 주민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12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의 외벽이 붕괴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음과 함께 외벽이 무너지면서 천장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들이 무너졌다.

아파트 벽이 붕괴되자 400여 가구에 거주하던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빠져나왔다.

주민들 중 어린이와 노약자 10여 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이다.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붕괴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추가 붕괴 가능성도 60%로 단일하게 예측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인근 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다. 입을 옷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대피한 이들은 붕괴 당시 공포와 하루 아침에 집을 잃었다는 분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지영 기자 <internetdaily.com>

3. 시나리오 3 > 불확실성 있음 * 자연 재난

진도 5.8 규모의 강진 발생, 전문가들 지진원인 의견 분분

추가 강진 가능성 불확실, 공포와 분노에 빠진 주민들

오늘 오후 진도 5.8 규모의 강한 지진이 50초 정도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지진이 멈추자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집을 빠져나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어린이와 노약자 10여 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지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지진 원인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8명의 전문가들은 지진의 원인이 활성단층의 작용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7명의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진 원인 진단에 따라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활성단층이 지진의 원인으로 보는 8명의 전문가들은 추가 강진의 발생할 가능성을 30~90%로 불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인근 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다. 입을 옷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대피한 이들은 지진 당시 공포와 추가 지진에 대한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지영 기자 @internetdaily.com

4. 시나리오 4 > 불확실성 없음 * 자연 재난

진도 5.8 규모의 강진 발생, 활성단층이 지진의 원인

추가 강진 가능성 60%, 공포와 분노에 빠진 주민들

오늘 오후 진도 5.8 규모의 강한 지진이 50초 정도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지진이 멈추자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집을 빠져나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어린이와 노약자 10여 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지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지진의 원인이 활성단층의 작용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추가 강진의 발생할 가능성을 60%로 예

측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인근 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다. 입을 옷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대피한 이들은 지진 당시 공포와 추가 지진에 대한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지영 기자 @internetdaily.com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risk uncertainty messages and disaster types on public responses

Focused on victim-blaming

Seungkyung Ham

Researcher, Ewha Communication and Media Research Center

Taking note of blames on victims in the recent major disasters in our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of generating blame on victims in disaster situ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uncertainty messages and disaster types and seeks out ways for society to recover from disast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ssages of disaster risk uncertainty were found to increase spontaneous evaluation compared with the messages without uncertainty while man-made disasters increase spontaneous evaluation, control level and emphatic anger compared with natural disasters. Messages of disaster risk uncertainty increase social support in natural disasters and decrease social support in man-made disasters.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higher the level of spontaneous evaluation which is a negative emotional response to disasters, the lower the victims' control level and blames on the victims. The higher the judgement on victims' disaster control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blames on the victims. The higher the blames and emphatic anger on the victims are,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for the victims whereas the higher the judgement on the control level, the lower the social support for victims.

Keywords: victim blaming, uncertainty, disaster, social support